

2008년 09월 30일 (화) 17:53 [연합뉴스 보도자료](#)

경북도, 20여개 무대공연작품 시군 무대에 올려

10월중 연극·무용·음악 등 볼거리 풍성

들판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, 무대위에선 춤과 음악, 연극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. 경북도에서 금년에 지원하는 무대공연 105개 작품 중 무려 20개의 작품이 10월 한 달간 시군문화예술회관 등에서 펼쳐져 도민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.



10.4(토) 오후 7시30분 경북챔버과이어의 오페라 '무영탑'이 경주안압지 야외특설무대에서 공연되는 것을 시작으로 10.9(목)엔 구미오페라단의 '춘향전'이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, 극단 대경사람들의 '원효대사'와 요석공주가 10.13(월) 경산시민회관에서 공연되는 등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진다.

도민이면 누구나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올려져 있다.

경북도 관계자는 '무대공연작품 외에도 찾아가는 문화활동, [문예진흥기금](#) 지원을 통한 각종 공연, 전시회 등을 연중 지역별로 개최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노력하고 있다'고 밝혔다.

(끝)

출처 : [경상북도청](#)